



"귀양이 홀벽에 가렸다"

뜻: 나쁜 일이나 위험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, 마치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재앙 · 근접 · 경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웹에서 보기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ㄱㅇㅇ] [ㅇㅂㅇ] [ㄱ르ㄷ]

